

세계인의 보물 7개 품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

5월 전세계를 공포 묶었던 코로나19 방역상황이 해제되고 맞는 첫 봄날 고창군이 이역만리 프랑스에서 날아든 반가운 소식으로 들쭉이고 있다.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지질공원'과 '세계기록유산'이 잇따라 인증·등재된 것. 이에 심덕섭 고창군수로부터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이 지구촌을 사로잡은 비결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고인돌, 갯벌, 농악, 판소리,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세계기록유산 등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

- 먼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찬란한 역사문화를 소중하게 지켜온 고창군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3년간 고창의 유산들이 유네스코에 잇달아 등재·인증되며 한국을 넘어 세계무대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과 완전성을 인정받아 왔어요.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7개나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긍심이 될겁니다.

이제 고창군은 자연생태와 역사자원을 기반으로 유네스코의 이념과 철학이 실현되는 장소가 됐습니다. 문화가 지역을 먹여 살리는 자산이 되고, 세계유산이 관광고창시대를 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콘텐츠를 만들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Q. 선운산 등 지역의 명소 13곳이나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자연과학 분야의 유네스코 3대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고창군은 10년 전(2013년)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2021년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오르면서 세계지질공원 1개 프로그램만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2017년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국내 9번째 인증을 받은 후 지질명소 보전과 활용을 위한 탐방로 구축, 신규 체험·탐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질공원 탐방 안내 체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도보여행길(지오토크레일)을 만들고, 운곡습지 생태공원 지질체험학습장과 지오드립 프로그램 운영으로 남녀노소, 전세계인이 쉽게 찾고 즐기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고창, 생태·역사자원 기반 유네스코 철학 실현 장소 돼 관광고창시대 열 수 있는 기반 되도록 콘텐츠 만들 것”

2017년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후 탐방로 구축·프로그램 개발·안내 체계 개선 등 추진

무장포고문 기록유산 등재로 현재 필사본 복제 착수 포고문 필사본 등 전시... 동학혁명 시작점 위상 높일 것

그럼 운영으로 남녀노소, 전세계인이 쉽게 찾고 즐기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신선이 놀다가 술상을 뒤집자 술병이 거꾸로 꽂혔다”는 설화가 전하는 병바위는 이미 지난해 12월 1일 문화재청에서 독특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명승으로도 지정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Q. 무장포고문이 세계기록유산에 올랐습니다. 의미와 동학농민혁명 성지 위상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 129년전 고창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고창의 정신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주와 평등,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고자 했던 근대 민중운동의 효시로, 참여자와 유족, 기념사업, 발상지 고창군의 상징성 등이 높이 평가돼야 하나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 등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고 평가절하됐죠.

129년이 지난 이제라도 무장포포지가 국가사적으로, 무장포고문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서 다행입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고창군은 현재 천도교 중앙총부가 소장중인 무장포고문 필사본 복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무장포포지에 기념관을 짓고 포고문 필사본 등을 전시해 동학농민혁명 시작점의 위상을 높여갈 예정이에요.

또 올 연말에는 도시 한 중심지인 군청광장

맞은편에 전봉준 장군 동상(군민 상급 등)을 세우고 군민 자긍심 높이기엔 내실 방침입니다.

Q. 세계지질공원 인증,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요?

- 국제적인 지명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관광 수입증가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협약에 따라 전문가를 통해 유산 보호에 필요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류 모두가 함께 보호하고 지켜야 할 세계 유일의 유산으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지역 위상·지역민 자긍심 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창군은 세계유산을 통한 관광이익이 직접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만들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에 참여하고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면서 전세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어요.

생물권보전지역 마크가 붙은 고창군의 농특산품은 타 지역 농산물과 비교해 더 비싸게 팔려나갔고, 학교와 기관·단체 체험객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 프로그램과 숙박으로 마을에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은 매주 장터(오페이글 장터)를 열어 특산물과 생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센인 정착촌이었던 호암마을의 경우 2005년까지는 축사가 들어서 접근을 꺼리던 곳이 지금은 생태관광에서 배움을 수 없는 명소가 됐죠.

Q. 올해를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축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점행사를 해보신다면?

- 3월 제1회 고창빛꽃축제에 3만명, 4월 열린 음약화에 1만명, 5월 바자라 페스티벌에 2만명, 청보리밭 축제에 35만명이 찾아오시며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 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몰리며 고창군에 활력이 넘치고 있죠.

6월 여름 시즌이 시작되면 고창군 축제는 '북분자·수박축제', '갯벌축제', '한여름밤의 물축제'로 이어지며 50주년을 맞는 모양성제도 전국 최고의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은?

- 고창군민들께 희망을 전해줄 수 있어 기쁩니다. 고창이 지켜온 문화유산과 정신문화의 씨앗은 문화·관광·경제·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선도하는 든든한 보루로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보물에 스토리와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해 각 유산별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급변하는 문화유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고창군은 앞으로 '미한역사유적'과 '삼금리고인돌군'의 세계유산 등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고창=김영식 기자

미래로 세계로! 생명하는 부안

부안, 위대한 자연유산을 품다!

부안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국내 5번째 세계지질공원 · 국내 최초 해안형 지질공원

채석강

올금바위

진리 거대 황야습곡

진리 주상절리

선계폭포

모항 페퍼라이트

솔섬

적벽강

직식폭포 / 모항 생선배 광택계(생각하는 배) / 유전리 청자 도요지 / 굴바위 / 계화도 제스퍼 / 계화도 역암 / 위도 진리 공룡알 화석지 / 소리 유변성 응회암 / 치도리 해변 / 용머리 층간 습곡 / 대·소형제도